

임파계의 결핵

김예원 / 김예원내과의원장

임파계의 결핵은 폐외의 결핵으로는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어린이에서 볼 수 있는 초감염 결핵의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예에서 기관지관지의 임파절을 침범한다.

이들 임파절에 결핵균이 침범하면 처음에는 염증반응으로 부어오르고 나중에는 건락성 괴사로 진행되어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기관지를 폐색시키기도 하고 기관지 벽의 흡집을 통하여 결핵이 기관지를 따라 확산해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로 무기폐나 기관지 확장증 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임상소견으로는 기침이 계속되면서 청진상 천명음이 들리기도 하고 흉부X선 상에 흉곽내의 임파절들이 비대해진 소견을 볼 수 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임파절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점점 없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폐내의 임파관을 따라 결핵이 감염되어 들어가는 것이 X선 사진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초감염 결핵병소와 국소 임파절을 연결하는 선상의 음영으로 보이게 된다. 폐

의 말단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 임파관은 흉막을 향하여 흐르기 때문에 초감염 결핵이 흉막염을 일으키게 되는 경로가 된다.

전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임파절 결핵은 흉막의 결핵으로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목부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연주창으로 이름이 높았었다.

목 양옆의 경부 임파절과 쇄골상부의 임파절이 호발부위이다. 감염초기에는 임파절이 급속히 커지면서 누르면 통증을 느끼기도 하나 보통은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여러개의 임파절이 엉켜붙은 듯이 만져지기도 한다. 괴사가 일어나고 그 부위가 녹아나면서 걸로 만져보아 파동을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터져나오게 되면 농루를 형성하여 분비물이 밖으로 흘러 나오게 된다. 아래 턱 뼈의 각진 부분 바로 밑에 위치하는 편도선 임파절에 결핵이 침범하는 수도 있는데 그 경로로는 오염된 우유를 통해 편도선에 결핵균이 감염되고 그것이 임파절로 이행되어 생긴다 한다.

쇄골상부의 임파절 결핵은 종격동의 병변이 퍼져나와 생기게 되고 목 이외의 다른 부위 가령 겨드랑이나 서혜부의 임파절 결핵은 그 주변에 일차적 병변이 있다가 전파되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핵이 폐전체로 퍼지거나 폐상염이 심하게 침범되는 경우에는 쇄골하부의 임파절과 종격동의 임파절 결핵도 생길 수 있다. 드물게는 신체 각 곳의 임파절을 동시에 침범하여 목, 겨드랑이, 서혜부의 임파절 결핵은 물론 기관기관지 임파절과 장간막 임파절의 결핵까지 같이 발생하는 수도 있다. 흉부X선 사진에서 목부위와 겨드랑이에서 석회화된 음영들이 동시에 보이면 이런 부위들에 장기간 지속된 임파절 결핵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다.

어린이에서 하악골 하부나 상부 경부 임파절의 결핵은 비결핵성 항산균의 감염으로 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때에 신체의 다른 부위의 결핵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무나 성인에서의 임파절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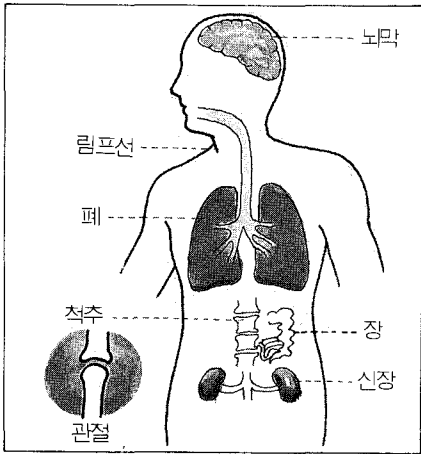
핵은 폐를 위시해서 다른 기관의 결핵이 같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결핵성 임파절염의 확진은 도말 및 배양의 세균학적인 진단과 임파절의 생검에 의한 조직학적인 진단으로 가능하다. 농이 흘러나오는 경우에는 농으로부터 세균학적 검사를 할 수 있고 생검조직에서 도말을 하여보면 양성률은 많아야 50% 정도이나 동시에 배양검사를 병행하여 확진율을 높일 수 있다.

비결핵성 항산균에 의한 임파절염과의 감별이 어려운데 앞에 얘기한대로 비결핵성 항산균의 감염은 소아에 흔하며 임파절에서 균을 배양 분리하여 감별을 할 수 있으나 임상적 소견만으로는 힘들다. 이 경우에 단순한 진단적 부분생검이나 절개는 만성적인 누공을 만들 수도 있으므로 임파절의 완전한 절개가 필요하기도 하다.

결핵성 임파절염의 치료는 역시 다른 부위의 결핵과 같이 항결핵 화학요법을 적용시키면 된다. 그러나 폐결핵에 비해서 치료효과가 느리고 치료기간이 좀더 길어질 수도 있다.

단기요법으로도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치료중인데도 임파절이 더 커지고 누공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항결핵제의 사용과 아울러 건락성 과사가 진행되고 있는 큰 임파절을 절제해주는 것이 좋다. 卍



폐 이외의 결핵

**실천하는 결핵예방
내일위한 비시지접종**